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마치고

건설분야에 종사한지도 어언 10년이 다 되어 여러 현장을 두루 경험하였으나 안전관리 부분에 담당책임자로서 근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연히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 여러모로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건설시공관리분야에 근무를 하다 보니 현장 작업원들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며 일하게 되어 그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그들을 이해하고, 그러나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음을 발견한다.

현재 광역 상수도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우리 현장을 돌이켜 보건대, 안전문제는 안전시설 및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로서 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를 지적하고 싶다.

우리 현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현장 대부분 작업원들이 안전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왜 안전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하여 전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자신도 주 1회 안전교육시 안전의식 결여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현장 작업자들에게 안전=행복이라는 등식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전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이 생기게 되어 한번 사고를 당해도 똑같은 유형의 사고를 당하기 십상이다.

나의 안전관리 중점 점검사항은 먼저 현장 곳곳을 살펴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 작업원들에게 안전의 첫째 조건으로서 항상 최상의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라고 당부하고, 당일 과도한 음주, 파로 등은 그 다음 날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또한 현장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요소 발견 즉시 안전관리자이든 작업자이든 바로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유도하고 있다.

끝으로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유익한 내용을 다소나마 현장 작업원에게 전달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성규 / 신평설비공업(주) 차장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은 1993년~1994년 2년간 총 5건(사망 1건, 중상 1건, 경상 3건)의 재해가 발생한, 안전 관리가 미비했던 현장으로서 이번에 참석한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통하여 많은 각성 아래 현장 안전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필요성을 느꼈다.

많은 재해 속에서 나만은 피해자가 아니겠지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작업장 근로자의 마음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한, 안전관리자의 반복적 교육은 우이독경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에 의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올해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재해로 인한 회사의 경쟁력 저하 및 재해로 심신이 병든 작업자의 손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파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현장 관리감독자의 임무가 막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으며 앞으로 건설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몇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회사 경영진에 의한 내리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 가족, 내 사람을 항상 걱정하며 아끼는 자발적인 사랑의 충만함이다.

그리고 두번째로 현장 소장 이하 모든 작업자가 나도 건설 재해의 불행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사고 순간들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동료들이 다시는 동일한 사고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사고의 잠재성을 알고도 재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하겠다.

끝으로 안전관리자는 소장 및 관리감독자, 작업자와의 유기적인 매개체가 되어 건설안전의 선봉이 되어 서로 포용하여 재해가 사라진 안전한 나의 직장을 만들면, 다가오는 국제 건설시장 개방화에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조용만 / (주)동아지질 공사부 기사